

# 사설

## 포교전선 '적신포'

다중사회에서의 교세의 확장은 장차 그 종교의 사회적 위상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 때문에 종교마다 교세확장을 최우선적 과업으로 설정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불교계도 교세확장을 위해서는 어느 특정 종단이나 개인의 역량만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불교계 전체의 힘과 지혜를 모아 총력을 기울여야 할 최우선적인 과업이다.

그동안 불교계의 포교전선은 각 종단마다 중요 사업의 하나로 중시되어 왔고 다중을 상대로 하는 불교방송, 주로 관료사회의 수입에 의지하고 있었던 관료사회의 수입의 감소로 그 계획을 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또 다중을 상대로 하는 포교일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불교방송과 불교TV가 광고수입의 격감으로 심각한 운영난에 봉착하여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하면 지역민을 상대로 최일선에서 포교활동을 담당해 왔던 도심포교당 가운데는 시설현대화조차 제때 마련하지 못하는 곳이 있어 기존의 대 사회적 자선활동을 중단하거나 급기야는 아예 문을 닫아 버린 곳까지 있다고 들린다.

아직은 IMF환파가 시작단계라는 데도 불교계의 포교전선에 적신포가 들어오고 있으니 앞으로 IMF환파가 본격적으로 밀어닥칠때는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 자못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종단적 차원의 계획이나 지원 아래 포교당운동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 차원에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의 도심포교당운동이다. 비록 도심포교당들이 개인의 능력으로 시작된 것이라 해도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금의 포교당들을 종단에서나 몰라라 하고 방치해도 좋을 상황은 아니다.

불교방송에 이상기류가 감지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불교방송의 경우 파행적인 재정운용으로 불자들의 지탄을 받아왔음에도 무엇하나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구조조정의 문턱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영상포교를 담당한 불교TV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제작은 커녕 재탕 삼탕 방영으로 오래전부터 세인의 관심을 끌지 못해왔었다.

이들 두 방송사의 문제는 불교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미루어 도심포교당의 문제와는 근본적으로 차원을 달리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불교계 두 방송사에 들어닥친 재정적 난관은 더 이상 방치하고만 있을만큼 한가하지 못하다.

포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중단하거나 포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지금처럼 어려움에 빠진 때일수록 중생들의 고탄품을 위로하고 내일에 대한 밝은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서라도 포교운동, 특히 불교계의 방송단은 더욱 제 기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만약 불교계 두 방송사의 재정적 난관을 타결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 가운데 만에 하나라도 특정 종단의 아집이 개입되어 있다면 더 이상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방송을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놓는데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계는 특정 종단에 미루지 말고 범종단적으로 방송포교 정상화에 나서길 바란다.

# "성보마다 고유번호 붙인다"

## 조계종 성보전산화 작업...도난·훼손 등 예방

모든 성보에 고유관리번호가 부여된다. 또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성보는 별도의 종단지정 번호를 부여받는다. 조계종 문화부가 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성보전산화 및 성보종단지정 작업은 그 가치에 비해 지금껏 주목받지 못한 문화재를 발굴하고 훼손이 심한 성보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 고유관리번호가 부여되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보도난 및 훼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성보전산화 작업'은 우선 성보문화재의 유형을 분류해 고유관리번호를 부여, 재질·크기 등 현상 및 보존상태, 명문내용 등을 부가 설명하는 한편 기존의 보고서나 연구성과물을 함께 정리하는 작업을 병행한다. 현재 해인사(1천8백점), 월정사(2천6백점), 화엄사(1천1백점) 등 3대교구 총 5천5백점의 성보에 대한 1차유형 분류작업이 끝났으며, 현재 2차분류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 성보를 입체영상화 해 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성보도난 예방 및 성보도난시 조차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성보종단지정사업'은 1910년 이전 성보 가운데 문화재급 성보를 상·중·하로 분류, 그

### 성보보존위원회 통과

성보보존위원회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성보보존위원회령'이 16일 중무회의를 통과했다. 성보보존위원회령에는 성보보존위의 관장사업으로 △전통사찰의 불사 △사찰 및 사적지 보호·발굴조사 및 복원 △성보전사관 및 박물관 건립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전통사찰의 불사시 위원회의 심의와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완료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부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분종땀 등록재산 환원해야"

### 대구지역 선학원분원장 14명 성명

대구지역 선학원 소속분원장 스님 14명이 15일 '조계종과 선학원에 요구하는 결의사항' 성명을 발표했다.

분원장 스님들은 성명사에서 "조계종과 선학원이 결별하는 것은 우리의 법통을 뿌리째 흔드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조계종은 선학원에 등록한 재산에 대한 관리제한을 성급히 집행하지말 것 △선학원 이사회는 분종할 경우 조계종 종지를 따르는 분원장에게는 선학원에 등록된 재산을 돌려줄 것 등의 4개항을 주장했다.

대구광역시 선학원 성명에 동참한 분원장 스님들은 "선학원에 재산등록을 한 분원들은 종단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실정"이라며 "선학원에서 재산

환원을 거부할 경우 뜻을 같이 하는 전국의 분원장스님들을 규합하여 적절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 "새 정부 인사 종교형평성 없다"

### 실천승가회·선우도량 등 9개단체 공동성명

정부 인사가 종교 형평성을 의문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관련칼럼 23면> 실천불교승가회, 선우도량, 중앙승가대학생회 등 9개 불교단체는 19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정외대 수석비서관 전원이 기독교인이고 각료의 3분의 2 이상이 기독교신자인 반면 불교신자는 3명 이내이며 문화관광부 신나균 장관이 신학을 전

공한 인사인데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며 "최근 국립공립관리공단 이사장이 기독교인으로 내정됐다는 점은 매우 당황케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동성명서는 "최근까지 선임된 일련의 인사과정은 불교계의 기대에 못미칠 뿐더러 김대중 정부 출범의 우려스러운 점들만 불교계에 각인시킨 것"이라며 "만약 우리의 우려가 인정받아 반영되지 않는다면 김영삼 정부에 가해진 불자들의 분노가 신정부에서도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조계종 97년 세입·세출결산 통과

### 조계종림 보성방장 의결...자유스님 원로의원 추천

#### 25일 재소집키로

제130회 조계종 임시중앙종회가 17일 개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각종 위원회 선출 및 동의의 건과 중앙종무기금 총무보고 일부를 처리하고 19일 폐회했다. 종회는 25~26일 2일간 일정으로 다시 소집키로 했다. 종회의장단은 25일 소집되는 제131회 임시중앙종회에서는 기초선원 지정의 요청의 건, 종헌개정특위 구성의 건, 종법제개정 안에 관한 건 등 현안문제를 우선 다루기로 했다. 종회는 조계종 97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마치고, 세입 1백

16억여원과 세출 1백3억여원의 결산내역을 통과시켰다. 또 조계종림 방장에 보성스님을 추대 의결하고 원로의원으로 자유스님(범사조실)을 추천했다. 소연심사위원회와 재삼호계위원 중앙승가학원 이사장 후보추천의 건등을 처리한 종회는 총무원이 요청한 호법부장 영배스님 임명동의안은 종무보고 도중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와관련 일부 종회의원 스님들이 "회의 진행이 총회법에 어긋난다"고 이견을 제시해 18일 오후 종회가 유회되었으며 19일 오전 이번 종회를 폐회기로 의결했다.

에 걸맞는 중단문화재로 등록·지정하는 중단중심 성보관리 체계 수립하겠다는 것. 국가 및 지방문화재 대상 성보도 별도로 분류, 종단이 일괄 신청하게 되며, 비지정 성보문화재의 도난이나 훼손에도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현재 직할에서 11교구까지 조각, 탑파(석조), 가람(건축), 장엄(법구), 회화, 경전 등 유형별 총 1백55건의 문화재가 입력돼 있는 상태이며, 올해 내 지정대상 성보를 선정할 계획이다. <윤기석 기자>



월주스님이 17일 신나균 문화부장관의 예망을 받고 협담하고 있다.

## "불교관련 대선공약 지키도록..."

### 월주스님, 문화장관에 교계현안 건의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17일 오후 4시 신나균 신임문화관광부 장관의 예망 받고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과 종단현안 등을 포함한 불교관련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월주스님은 건의서에서 사찰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 국립공립 입장료 폐지, 문화재 보존 보수를 위한 예산지원 확대, 불교방

송 지방공 추가개국 허가, 조계사 경내지 정비지원, 불교중앙박물관 및 사찰의 성보박물관 건립 지원, 팔만대장경 한글화 및 전산화 사업, 경주 황룡사와 익산 미륵사지 등 사사지 복원, 남북불교교류지원, 청소년 수련장 건립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10개현안을 검토 수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대만평**  
박구원

737-8881

큰마음을 모아서

# 3월 31일 팔공산 파계사에서 만남시다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영산대재  
철웅대선사  
초청대법회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7번지  
팔공산 파계사



은 나라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삶의 지혜와 불같은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팔공산 파계사에서는 우리지역 불자들의 원력을 한데 모아 이 경제난국을 극복하고자 부처님께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영산대재"를 봉행함과 아울러 20여년간 수행정진으로 높은 법력을 갖추시고 하산하시는 철웅대선사를 모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는데 꼭 필요한 슬기와 용기를 얻어 복덕과 지혜가 충만하옵길 바랍니다.

팔공산 파계사 주지 석성우  
영산대재 봉행위원회

- 일시: 1998년 3월 31일 오후 1시
  - 장소: 대구 팔공산 파계사 진동루
  - 문의: 파계사 (053) 984-4550, 조계사 (02) 732-2115, 안일사 (053) 655-0225, 은적사 (053) 653-1572, 용연사 (053) 616-8846
  -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파계사
  - 주관: 영산대재 봉행위원회
  - 후원: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대구광역시사원주지연합회, 불교대구방송, MBC대구문화방송, TBC대구방송, 불교텔레비전, 법보신문, 불교신문, 현대불교, 주간불교, 대한불교
- ※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동참금 없이 영산지의 축원문을 올려드리며 큰스님의 화보 법문집을 기념으로 드립니다.

- 법회 프로그램 안내
- 제1부(오후 1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영산대재  
영산재의식/구해스님(인간문화재) 외 3인
  - 제2부(오후 2시)  
철웅대선사 초청대법회
  - 진행자: 김병조(불자 연예인)